

신축화해길 화해의 길



'신축화해 길'은 제주 근현대의 아픔인 4·3과 신축교안의 역사적인 상처를 담고 있다. 신축교안의 희생자들이 합장된 황사평을 시작으로, 제주에 유배된 정난주 마리아가 도착한 화북포구, 4·3으로 사라진 곤을동 마을과 희생자들이 버려진 별도천, 천주교인들이 희생된 관덕정을 거쳐 제주지역 최초의 본당인 중앙 주교좌성당에서 마치는 총 12.6km의 순례길이다.

특히, 이 길은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쾌적하고 화려한 도시의 이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공장밀집지역과 재활용품 집하장 등을 거치면서 교통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의 현재가 존재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과 없이 보여지는 도시의 속내가 점시나마 우리를 성찰의 길로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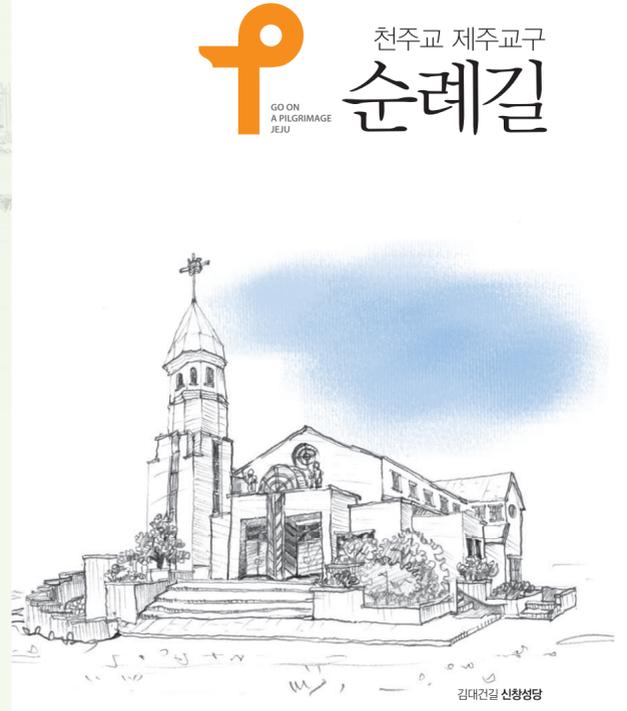


임피제,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신부
(Patrick James Moglinchey, 1928-2018)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사제로 1954년 4월 제주도 한림공소에 부임, 한국전쟁과 4·3 사건 등으로 물질적 빈곤과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던 피폐한 땅 제주를 위해 정착을 결심하였다. 어린시절 수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족진료를 다녔던 경험을 토대로 제주의 양돈·목축업 산업에 씨앗을 뿌리고, 제주 최초의 지역신용협동조합 설립, 4H 결성, 병원·요양원 설립 등 제주도민의 자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제주의 경제·복지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 공로로 5.16민족상, 막사이사이상, 대한민국 석탄산업훈장, 내무부 장관상, 적십자 봉사상, 아일랜드 대통령 특별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고, 2005년에는 맥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이 한국 국빈방문기간 중 직접 '이시돌'을 방문하여 신부님과 환담하고 시설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2011년 은퇴하여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받았으며(1973) '임피제(성 맥그린치와 이롤인 패트릭 제임스의 머리글자, M·P·J)'라는 이름을 한국인으로 이시돌 안에 거주하다 2018년 4월 23일 선종했다. <맥그린치로>는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명예도로명으로 한림읍 금악리 일대 금악북로 3.8km 구간이다.

064-773-2217
제주시 한림면 조수2길 10

064-773-1423
제주시 한림면 중산리사로 3521

064-796-4180
제주시 한림읍 금악북로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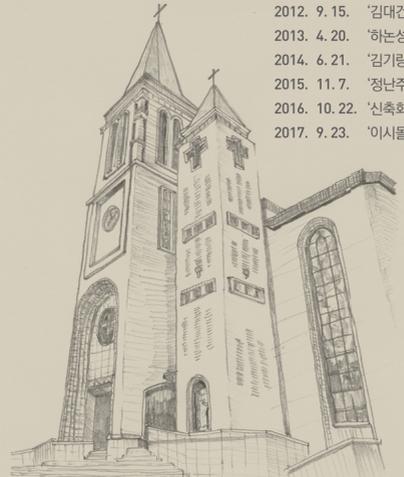


www.peacejeju.net
홈페이지에서 리플릿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순례길에는 제주 천주교의 숭고한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연혁

- 2011. 천주교 제주교구 성지순례길 TF 구성
- 2012. 9. 15. '김대건길' 선포
- 2013. 4. 20. '하느님길' 선포
- 2014. 6. 21. '김기량길' 선포
- 2015. 11. 7. '정난주길' 선포
- 2016. 10. 22. '신축화해길' 선포
- 2017. 9. 23. '이사돌길' 선포



신축화해길 중앙 주교좌성당



순례길 상징 심볼마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온 길을 뜻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네 신자들이 걸어갈 길을 상징합니다.



순례자 축복 기도

떠나며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계시니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종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의 길을 하느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어
낮에는 구원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은총의 빛으로 밝혀 주시어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목직지에 무사히 이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돌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하느님께서서는 충실한 백성을 선택하시어,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하느님을 더욱 충실히 섬기게 하셨으니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기뻐하며 돌아온 이들이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과 행동으로 모든 이에게 보여 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김대건길 빛의 길



고산성당에서 시작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수월봉 인근과 자구내 포구를 지나 성 김대건 신부 표창자인 용수성지를 둘러 본 다음 신항성당에 이르는 총 12.6km의 순례길이다.
용수포구는 김대건 신부가 1845년 8월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후 일행 13명과 함께 '라파엘호'를 타고 서해 바다를 통해 귀국하는 길에 풍랑을 만나 표착한 곳으로 고국에서의 첫 미사를 봉헌한 감격어린 장소이다.
이 곳에는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창 기념성당과 기념관이 있고,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복원한 라파엘호를 전시하고 있으며, 김대건 신부가 간직한 '기적의 성모상본'에 있던 성모상이 아외에 건립되어 있다.



하느님길 환희의 길



서귀포 성당에서 시작해 서귀포 신앙의 모태인 하느님길과 홍로성당이 있었던 면형의 집을 거쳐 다시 서귀포성당으로 귀환함으로써 시작과 끝이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하는 총 11.0km의 성찰의 길이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천지연 산책로를 지나 산남지역 신앙의 못자리인 하느님길과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하느님길을 거쳐 고대길(타케신부길), 115년 전 타케신부가 하느님길을 이천하면서 걸었던 길(타케신부길), 숨반내와 용담소나무길을 지나 면형의 집에 도착한다.
서귀포성당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서귀포자성당과 매일올레시장, 이충섭거리와 타케신부거리 등 문화의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김기량길 영광의 길



조천성당을 시작으로 함덕마을을 거쳐 복지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의 순교현양비에 이르는 총 9.3km의 길로 제주의 해안도로가 안겨주는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제주에 처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린 제주 최초의 신자이자 '최초의 순교자'인 김기량 펠릭스베드로.
2001년 그에 관한 귀중한 사료들이 대거 발굴되면서, 제주교구 사복시성추진위원회는 2002년 1월부터 김기량 시복시성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2003년 1월 조천 성당에, 2005년 4월에는 그의 고향인 함덕에 순교현양비를 세웠다.
2006년 9월 10일 김기량 순교 140주년 기념 신앙대회를 열었고, 2007년 11월부터 그의 신앙과 순교정신을 현양하고 시복시성을 위해 전 신자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8월 16일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복자품에 오르게 되었다.



정난주길 고통의 길



'정난주 마리아요'에서 시작해 '모슬포 성당'까지 이르는 총 13.8km의 순례길이다.
정난주 마리아는 남편인 황사영(일렉시오)의 백서사건으로 1801년 신유박해에 제주로 유배 오는 중 추자도에서 아들 황경환과 생이별을 하는 슬픔 속에서도 이 고장에 신앙의 씨앗을 남기고 생애를 마쳤다. 정난주 길에서는 정난주 마리아의 묘와 함께 대정현성과 추사 김정희 유배지, 대정학교, 신축교안(1901)의 유적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일제시기 태평양 전쟁을 준비했던 일본군 유적과, 4·3의 아픔이 담긴 첫알오름, 6·25전쟁 때 중국군 포로들이 지은 옛 성당건물이 모슬포 성당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